'최소 배출 건설 환경의 구현' - 제2차 건설환경기본계획

- 환경성강화 · 깨끗한현장실현 · 폐기물발생억제및재활용촉진이3大실천목표 -

건설 폐자재의 재활용 및 환경 친화적인 건설 공사에필요한시책의근간이되는제2차건설환경기본계획이지난한해동안의 준비를거쳐금년부터 시행 중이다. 건설환경기본계획은「건설기술관리법」제26조의5 및동법시행령제46조의8 제2항에의거 환경 친화적인 건설 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5년단위로수립되는 계획이다. 지난 2000년에 마련되어 2001년부터2006년까지시행된제1차건설환경기본계획이완료됨에따라5년간수행된건설환경기본계획의성과를면밀히평가하여마련된것으로금년부터2011년까지5년간적용된다.

최소 배출 건설 환경 구현이 정책 방향

제1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의 가장 큰 성과는 개발 위주의 건설 환경 정책에서환경을 고려한 자연환경 보전 중심으로 건설 환경 정책의 발전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토대위에 보다 실효성 있는시책으로개선함으로써자연과공존하는친환경건설을이룩하고건설과환경의조화를위하여 건설사업의환경성을강화하는것이제2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의과제라고할수있다.

이러한과제의실현을위해제2차건설환경기본계획은 앞으로의 건설 환경 정책의 방향을 Least-Emission(최소 배출) 건설 환경의구현으로정하고 있다. 또3대 실천목표로 계획 단계에서의 건설 사업의 환경성강화, 시공단계에서의깨끗한건설현장 실현, 관리단계에서의건설폐기물발생억제및재활용촉진으로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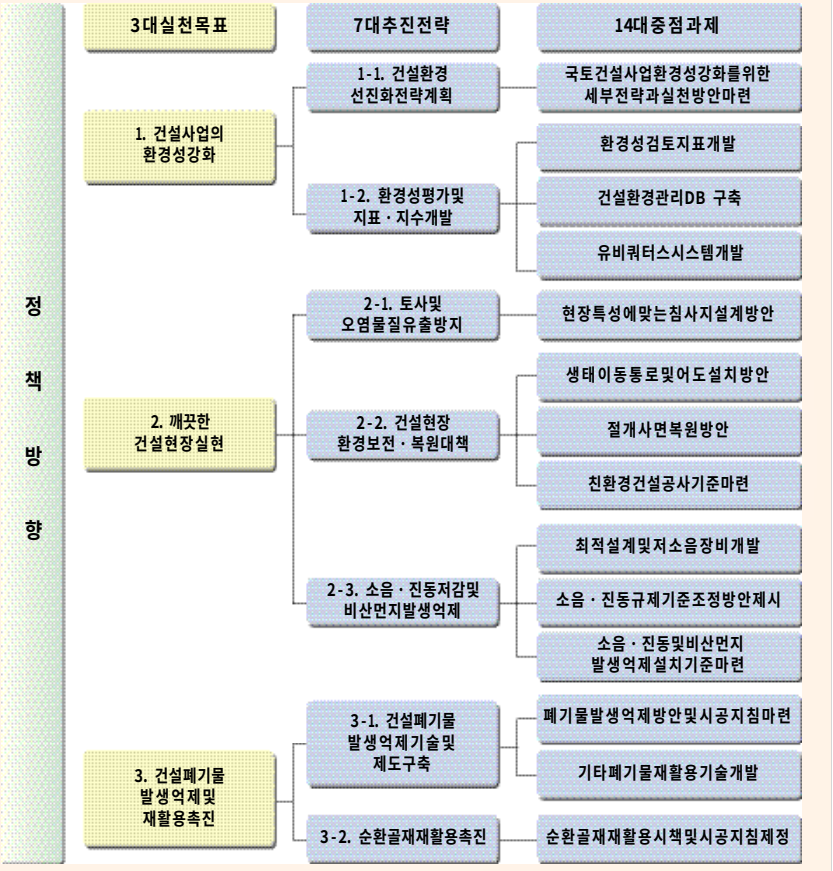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건설환경기본계획은 향후 2011년까지적용될예정이다. 제2차건설환경기본계획에서는앞으로의건설환경정책의방향을 Least-Emission(최소배출) 건설환경의구현으로정하고있다.

추진 전략 및 중점 과제

실천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인세부과제를 보면 첫째, 건설 사업의 환경성 강화(계획 단계)를 위해 건설 환경 선진화 전략계획수립및객관적환경성평가를위한지표 및 지수 개발이 추진된다. 우선계획 단계에서의환경성검토및강화체계미흡으로 사패산 · 천성산 터널 공사의 예에서 보듯이건설주체와국민및이해관계자간갈등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건설환경선진화전략계획의수립이추진된다.

구체적으로 개발 사업의 과정에 환경 전문가가 참여하는 MEP(Master Environmental Planner) 도입등 현행 MP제도가 강화되고 사업 환경 계획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또한,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이 추진돼 공사 특성별 환경영향요인의분석, 공사유형별로차별화된 평가서 작성 지침 마련 및 최적 설계 공법제시 등이 도입된다. 여기에기후변화협약에따른에너지소비및이산화탄소배출 규제대응을위해신축건물의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 강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및친환경건축물인증제의활성화가추진된다. 다음으로, 환경성평가및지표 · 지수개발을통해건설사업의환경성강화목표와성과를판단할수있는지표등의개발이추진된다. 이를위해생태면적률개념의 도입,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과생태도시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첨단 도시인 U-Eco City 연구개발 등 새로운 Eco-Space 개발기법의연구및도입이추진된다.

제2차 건설환경기본계획



자료: 제2차건설환경기본계획, 건설교통부, 2006. 12.

둘째, 깨끗한건설현장실현(시공단계)을 위해토사유출및오염물질유출을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대책과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발생억제방안마련이추진된다. 구체적으로보면우선토사및오염물질유출방지를위해현장특성에맞는침사지설계방안마련이추진된다. 이를위해건설현장환경관리조사실시, 토사및오염물질유출에대한문제점및특성파악, 토사유출량산정기법마련등의세부과제가추진된다.

다음으로, 건설현장환경보전·복원대책의 수립을 위해 생태 이동 통로 및 어도 설치방안, 절개사면복원방안, 친환경건설공사를위한환경기준등의수립이추진된다. 여기에 건설 환경 전문 인력 활용 방안의마련도추진된다.

마지막으로, 소음·진동저감 및 비산먼지발생억제를위해소음·진동을미리예측하여최소화할수있는최적설계방안도입및소음、진동원인에따른저감기술및방음재료개발, 합리적소음·진동규제기준조정방안등이제시된다. 그리고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설치기준및조치에수반되는제비용을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공사비계상기준의마련이추진된다.

셋째, 건설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관리 단계)을 위해 건설 폐기물 발생억제기술및제도구축과순환골재재활용촉진을위한시공지침등의제정이추진된다. 건설폐기물발생억제기술및제도구축은국가폐기물발생량의약50%를차지하는건설폐기물의발생억제정책이핵심이다. 이를위해우선건설폐기물의발생량감소를 위한 설계·시공 지침의 개발과 제정이추진되어건설현장분별해체공사의의무화 도입 기반 구축이 추진된다. 또한, 기타 폐기물 재활용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여 폐목재·폐유리·폐합성수지·건설오니등의재활용기술개발및보급, 기타폐기물의토목공사활용기술개발 및고부가가치화기술개발이추진된다.

다음으로, 순환골재 재활용 촉진이 추진된다. 순환골재재활용품질기준은 제시되고있으나구체적인설계및시공관련시방서제정및보급이이루어지지않은현실을개선하기위해순환골재사용의무대상공사 및 용도 확대, 순환골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인센티브부여방안등을중심으로순환골재재활용시책및시공지침제정이추진된다.

건설업에 어떤 영향 미치나

첫째, 대형 국책 사업 및 대규모 개발 사업의 시행시 공사 착수 전의 검토 사항이 증가또는강화되어이부분에대한발주자 및시공자의부담은증가할것으로보인다. 다만, 공사 착수 후에는 천성산터널 공사 중단과같은문제는해소될것으로보인다. 둘째, 건설현장관리가강화되어시공자의 현장관리에인적및경제적부담이증가할 것으로보인다. 이는환경보전비현실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폐기물 처리및재활용에대한규제의강화로건설공사품질에관한논란및폐기물처리업자와의건설폐기물분리발주문제가지속적으로발생할것으로보인다.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wskang@cerik.re.kr